

- 주요 뉴스: 미국 '22년 12월 소매판매 발표, 수요 변화 여부 주목, 일본은행 정책회의도 관심
 -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다음 FOMC에서 이전보다 작은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
 - 영란은행 통화위원, 경기침체 위험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
 - 중국 '22년 12월 수출, 전년동월비 감소,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배경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예상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 주가 상승[+2.7%], 달러화 약세[-1.6%], 금리 하락[-5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기술주 강세 등으로 1.8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및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8%, 3.3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간축기조 전환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하락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2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/13일	1/6일	전주말대비			1/13일	1/6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999.1	3,895.1	2.67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0%	3.56%	-5bp
	유럽	452.54	444.42	1.83%		독일	2.17%	2.21%	-4bp
	중국	3,195.3	3,157.6	1.19%		영국	3.37%	3.47%	-11bp
	일본	26,120	25,974	0.56%	CDS 5y	한국	43bp	49bp	-6bp
	한국	2,386.1	2,290.0	4.20%		중국	53bp	61bp	-8bp
환율	달러지수	102.20	103.88	-1.61%	위험 지표	EMBI+	377	390	-13bp
	유로화	1.0830	1.0644	1.75%		VIX	18.35	21.13	-13.16%
	엔화	127.87	132.08	3.29%	원자재	WTI유	79.86	73.77	8.26%
	위안화	6.7010	6.8280	1.90%		구리	421.6	391.1	7.80%
	원화	1,241.3	1,268.6	2.20%		금	1,920.2	1,865.7	2.9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'22년 12월 소매판매 발표, 수요 변화 여부 주목. 일본은행 정책회의도 관심

- 1/18일 작년 12월 소매판매가 발표될 예정.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영향으로 수요 관련 지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질 전망. 현재 시장에서는 '22년 12월 소매판매가 중고차 및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.0% 줄어 '22년 11월(-0.6%)에 이어 감소세 지속될 것으로 추정
- 최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은 당분간 소매판매 감소를 유도하면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.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실질임금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재정이 개선되고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
- 블룸버그에 따르면, 연준은 단기적 측면에서 제조업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를 과소평가. 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소비증가가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높아질 소지. 이에 연준은 금년 내 금리인하에 부정적이라는 신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판단
- 한편 1/18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릴 계획. 다수의 전문가들은 12월 수익률곡선제어(YCC) 조정 이후 이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에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
- 반면 일부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. 특히 4월 구로다 총재의 퇴임을 앞두고 이러한 예상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이는 지난 주 10년물 국채금리의 0.50% 상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. Citigroup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YCC를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다음 FOMC에서 이전보다 작은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

- 보스틱 총재는 최근 경제지표들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가 확인되고 있으며, 이는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발언.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작년과 달리 0.25%p 인상에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부연

■ 미국 재무장관, 경기의 연착륙 성공을 전망

- 옐런 장관은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진단. 아울러 연준의 2가지 책무(최대 고용, 물가안정) 달성을 확신한다고 첨언

■ 미국 Goldman Sachs와 BofA, 경기침체 불구 미국 주가 상승을 예상

- Goldman Sachs의 사림 모사바라마니 CIO는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S&P500 지수가 작년 말 대비 최대 12%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. 또한 그 동안의 주가는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을 이미 반영했다고 평가
- BofA의 마이클 하넷 스트래티지스트는 경기둔화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S&P500 지수(현재 3999.1)가 3600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, 하반기에는 경제 여건이 안정되면서 4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

■ 영란은행 통화위원, 경기침체 위험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

- 캐서린 맨 위원은 내재되어있는 영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기에 큰 폭의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.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

■ 중국 '22년 12월 수출, 전년동월비 감소.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배경

- 작년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.9% 줄어 전월(-8.7%) 대비 감소폭 심화. 이번 결과는 대외수요 부진 등에 기인. 반면 수입은 감소율이 하락하여(-10.6%→-7.5%) 향후 국내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

■ 호주 총리, 중국과의 무역관계 회복을 강조. 원활한 석탄 수출 기대

- 알바니스 총리는 중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며 양국 간 관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. 또한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원하며,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무역관계 형성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1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일, 독일 '22년 12월 도매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소비심리, 실질임금 감소 등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- WSI

(Four Signs Consumers Are Pessimistic About the Economy)

- 작년 유럽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소비자 기대심리는 러·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및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하락. 이는 ①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가 원인.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및 G20 선진국의 월별 실질임금은 '22년 전반기에 각각 1.4%, 2.2% 하락. 글로벌 실질임금 하락은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
- 이 외에도 ② 주요국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고용 둔화 가능성 증가 ③ 고물가 및 고령화 등으로 은퇴 시기의 가계재정 여건 악화 ④ 미국 소비자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 감소 등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.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된다면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여건은 개선될 소지

■ 미국의 인플레이션,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 - 블룸버그

(Hold the Champagne(Brunch). Inflation Isn't Over)

- 코로나 팬데믹의 쇠퇴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이 변화하면서 '22년 12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6.5%로 전월(7.1%) 대비 하락했으나,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신중할 필요
- 이전에는 상품과 에너지가 인플레이션 급등을 주도했으나, 이제는 서비스 부문이 주요 원인.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교통비 상승 등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불편할 정도로 높고 정점 바로 아래 수준에 위치
- 미국 노동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, 이로 인해 임금-물가의 연쇄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연준 정책기조 전환을 제한하는 요소

■ 금년 유럽 금융시장, 미국과 비교 시 보다 긍정적 여건 지속 예상 - 블룸버그

(European Assets Are Now All the Rage as US Markets Sputter)

- 최근 유럽 주가는 에너지 위기 우려 감소,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 기록. 미국 증시는 금리상승에 취약한 기술기업 비중이 높지만 유럽은 금리상승에 유리한 금융주가 중심이기에 금년 강세 지속이 예상
- 미국·유럽 간 투자적격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작년 10월 정점 기록 후 최근 절반 가까이 축소. 고수익 채권의 채무불이행 전망도 미국(6.5%)이 유럽보다 3%p 높은 수준(UBS). 다만 ECB의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 등은 부정적 요인

■ 구리 가격 상승세, 중국 요인 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- Financial Times

(Copper/China: red metal's purple patch is set to continue)

-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9,120달러로 7개월래 최고 수준. 이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
- 전세계 구리 수요에서 중국의 비중이 50%를 상회하기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. 또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. 건설부문의 구리 수요는 전체의 1/4을 상회. 아울러 구리 재고량도 '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이 외에 달러화 약세가 원자재 가격 회복을 유도하고 있으며, 이전보다 덜 매파적인 연준의 통화정책도 긍정적 요인. 조만간 작년 초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

■ 지정학적 충돌, 글로벌 경제 통합 및 평화를 저해할 우려 - Financial Times

(Geopolitics threatens to destroy the world Davos made)

■ 미국 은행, 고객의 고수익 추구 등으로 예금액 감소 예상 - Financial Times

(US banks: shrinking deposits will add to pressure on fund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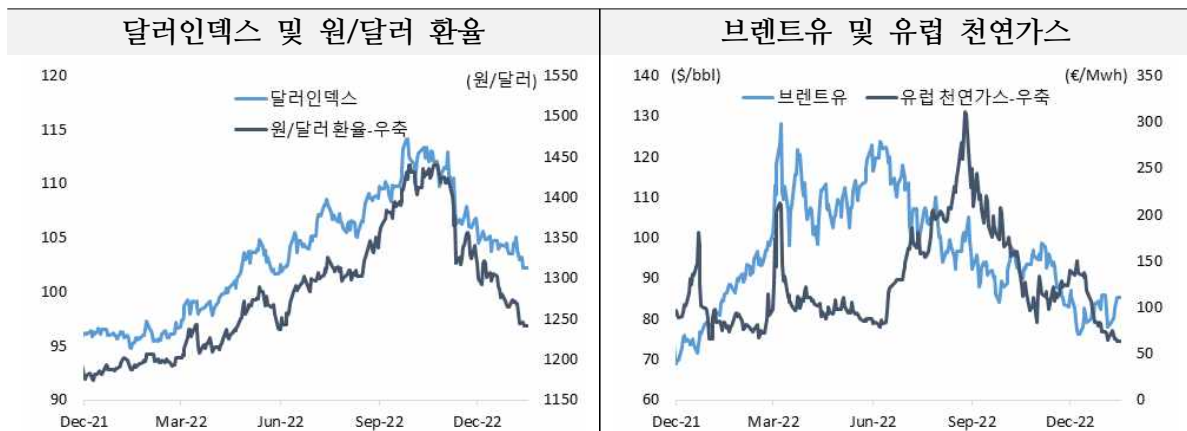
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, 신흥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- 블룸버그

(China's Reopening Is a Mixed Blessing for Emerging-Market Asset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